

복음을 누리는 삶

시편 23:1-6, 베드로전서 3:15

최정웅 목사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할렘루야.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니라.' 말씀하셨다. 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누리려면 순종해야 한다. 악인은 절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 오늘 주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며, 그 열매는 어떤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 삶이 정말로 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누리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인간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돌볼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주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돌보도록 하셨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오게 하라.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내 이름을 찬송케 하려고 지은 자를 오게 하라.'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성경을 주셨는데, 에덴동산 한복판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물론 그 옆에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도 있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다. 사람의 마음에 조금 안 맞을 수 있다. '왜 다른 것 먹게 하시면서 저 열매만 못 먹게 하시는가.'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랬더니 사단이 뱀 눈을 하고 멀시하고 바보, 천치를 보는 눈을 하고서는 하와에게 '그것을 모르느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가 저 열매 하나만도 못한 거야.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 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열매를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만 같은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사진을 붙여놓고 다리가끼리 중이로 가려주고 조금만 보이게 해 놓으면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반드시 그 중이를 따게 되어있다. 결국에는 호기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죽어도 지켜야 한다. 절대로 지켜야 한다. 그것만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한다. '뭘 어쩔겠어.' 라는 마음은 넘어가게 만든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중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쯤이야 어떻겠는가.' 라는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하게 되면 중독된다고 한다. 자꾸만 유혹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적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죄이다. 그런데 배후에 그렇게 만든 자가 있었다. 바로 사단이다. 사단이 뱀으로 둔갑해서 속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죄를 사단에게 전가하고 원수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를 대는 죄 또한 있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거나 안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진실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기어이 불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바른 길을 모른 것이 아니다. 과녁을 벗어난 것이 죄이다.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죄이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의, 참, 정의가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기꺼이 반대편,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였다. 그 때가, 책임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게 된 세상이 된 것이다.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값으로 롬 6장 23절에 죽음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회생, 재생,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계획을 세워주셨다. 그것이 구약이다. 구약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처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처녀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이 구약이다. 구약은 한 마디로 메시아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시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다. 신약은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이루었다는 것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구약의 대표적인 히브리 말 '메시아', 신약에 나온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다. 그 말을 해석하면 '기름부수' 받은 자이다.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선지자를 세울 때 잘 다듬은 뿔에다가 향수 몇 방울을 띄워서 머리에 부어서 임직식을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도 똑같이 기름을 붓는다.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향수를 부어서 대관식을 한다.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그 길을 안내해주는 분이 선지자이다.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제사장은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제사장이 되어, 당신을 제물 삶아서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완벽하고 깨끗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왕은 한 나라의 대표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생활을 책임져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진짜 원수는 인간이 아니다. 부모, 형제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다. 진짜 원수는 사단이다. 사단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어주셔서 원수 마귀 왕을 물리쳐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주시고 그 원수에 손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메시지가 성경 66권이다. 마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로써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주셨습니다.' 이 말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렘루야. 여러분이 위태로울 때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는가? 극한 상황,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는가? 나는 있다. 오늘 구약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누리는 삶에 23절을 노래했다. 노래는 몸이 괴로울 때, 행복할 때, 외로운 때, 힘들 때, 힘들 때, 시편 23절을 암송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로써 복음을 누리는 것을 노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것을 몰라도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고, 하루에 한 번 읽어봐도 좋다. 나는 군대 갔을 때 날마다 이 구절을 암송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위로, 힘이 되더라.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내가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이 네 것이 되어야 한다.' 내 것이 안 되고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사모 수련회를 가서 개강메시지를 하게 되었다. '사모님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데, 복음소식을 집중적으로 한 달만 암송해봐라. 7살 아이도 암송하는데 당신들이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집중을 해서 사모님들이 복음 소식, 복음의 기초를 암송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날부터 누림이 오기 시작한다. 그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데 그 분을 주인으로 모시라고 말씀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허물과 죄를 죽였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참사랑가족들은 이것이 반드시 되기를 축원한다.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부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런 기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누구한테도 가서 이야기할 정도로 누리려면 그 날부터 참된 자유가 온다. 듣고 행한 사모님들은 자유인이 될 것이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믿고 떨지만 하지 절대로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림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누리라는 것 아닌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요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받아만 들이라는 것이다. 문만 열라는 것이다. 믿으려 오셨으면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여라. 그래야 내 것이 된다. 그 때부터 누림이 온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길은 없다. 이 복음만이 너를 살릴 수 있고 네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와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것은 없다. 하나님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하며, 왜 그 분이 아니면 안 되는지에 확신을 내리셔서 내 마음에 주로 삼으라는 것이다. 그 이상은 없다. 천국도 장례식에 한 번 가봤다.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머니가 천주교인이었다 보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돌아가신 분의 세례명이 '아가다'였는데, 그 분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아가다가 갑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성자님. 아가다가 갑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아가다가 갑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네.'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랐다. 하나님 아버지기도도 안 되고, 아들기도도 안 되고, 성령기도도 안 되니까 '성모님. 아가다가 갑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한다. 그 다음에는 성모님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바울, 베드로, 성자 이름을 다 불러서 아가다가 가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도 믿을 때만, 그 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구원이 가능한 것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손님으로는 안 된다.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사업의 주인으로 되어야 한다. 요즘 기도제목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부흥을 안 주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꼭 부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부자가 없게 하셨을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의인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축복 받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그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런데 이 한 길을 여러분이 아는데, '또 들은 소리구만.' 하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 누림이 없는 것이다. 단순히 저러. 그냥 믿으라. 그 분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

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라. 그 때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분 때문에 마귀가 쫓겨 나고,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게 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17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한 번 오시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 옆에 어떤 목사가님이 구원 받아도 또 타락한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친다는데, 그렇게 하면 장로교간판을 때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꾸만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 병이 낫는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이 700억을 내서 건물을 샀다고 한다.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안 하면 죽는다는 식으로 가르치니 사람들이 겁이나 열심히 내는데, 우리는 복음이다. 믿으면 된다. 하니 안한다. 참 희한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생명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운 것 없이 그 분이 원하시면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 헌신, 봉사이다.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의정부 교도소에 교정위원이었는데, 밖에 나와서 운동할 때 쓰라고 공 몇 개를 가지고 갔다. 어느 절에서 트럭으로 공 몇십 개, 과자, 떡을 한 트럭을 가지고 와서 주는 것이다. 이미 내라고 해서 나는 냈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자존심이 상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진도이다. 그것을 누리면 된다.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 그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언젠가 내가 간증한 적이 있다. 정말로 질병에 시달리는 분은 주의 이름을 불러보라. 나는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다. 신학교에서 기독교를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한 시간 동안 배운 것도 아니고 한 학기 동안 계속 배웠다. 그러나 무사로서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누림이 안 되는 것이다. 오직 이 안 되는 것이다. 천주교인들이 장례를 하는 것처럼, 그 분을 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분을 믿으면 내 속에 생명이 살아난다. 그 안에서 너는 영생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성경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껴 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다 되는가. 다 된다.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정말로 확인되고 체험되는 순간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체험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 갈 때 4시간동안 외쳤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무호흡증이 있어서 운전하다가 잠이 든다. 안 죽으려고 4시간 동안 불렀다. 내가 목사로 있어서 그렇게 불러본 적이 있다. 훈련에 갔더니 어떤 평신도가 나와 포렘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시부모와의 갈등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엄청난 게 충격받았다. 그래서 '나도 한 번 입으로도 불러보자.' 해서 계속 부른 것이다. 오전 내 태중대 자살바위를 돌면서 바다를 보면서 외쳤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여 년간 앓던 위궤양이 나왔다. 병원에 가보니까 다 나왔다는 것이다. 너무 가난한가. 무슨 일이 안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기도해 보라.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무슨 일이 생겨서 된다. 목사들이 절쟁이한테 '어디다 교회를 지어야 잘 되겠습니까?' 하고 온다는 것이다. 장로님, 권사님도 온다고 한다. 알긴 하는데 잘못 아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승리하기를 바라던. '네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삼았으면 이제부터는 너의 삶이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 번 생각했다. 근래 메시아가 62가지 진도자의 삶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고' 이다. 갈릴당, 7가지 서밋, 5가지 기도 능력, 9가지 균형, 그리고 20가지 전략을 전부 다 합치면 62가지이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정말로 어렵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여성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아이를 낳은 분들은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이 변한다. 확연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오시면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있다.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하게 된다. 오늘 가서 생각해보라. 내가 주님을 맞이하였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는지, 내 영혼에 삶의 양식의 변화가 있는지 62가지를 두고 점검을 해보라. 그 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하여 새사람이 되었다. 그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하지 않겠나. 변화가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성도인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도가 된 것이다. 그것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 그래서 성도이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분을 누리기 시작해라. '사업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분이 주인이시다. 물어보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르겠거든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이다. 그 때부터 깨달음이 오는 것이다.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증거가 온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요셉을 보라. 요셉이 '나를 보세요.' 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주인이 보았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나.' 참 사랑가족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보이면 끝이다. 행통한 자가 되는 것이다. 왕이 말했다. '너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보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왔는가. 그렇다면 변화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날마다 한 기도

를 해라. 다른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길이 보인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그렇게 되면 따라가면 된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증거가 온다. 다리오 왕이 와서 사자 굴에 집어넣으면서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주시리라.'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법 때문에 사자 굴에 넣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사자 굴을 향해서 외쳤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시더냐.' 그랬더니 그 사자 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일주일간 굶은 사자에게 사람을 던졌으면 갈기갈기 찢어 먹었을 것 아닌가. 다니엘이 왕에게 항상 굶은 사자에게 사자를 하옵소서.' 그 말이 들려오는 것이다. '내가 섬긴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보내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먹지 못하옵나이다.' 그래서 밧줄을 내리면서 '다니엘아 어서 올라오너라.'라고 한다. 사자들이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은 것이 아니다. 하늘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돕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번 주에 우리 남은 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한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라.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하지 말고 한 번 해보라.

그렇게 되면 주인이 된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해라. 내가 다락방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다. 나중에 증인들이 나와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 우리 교회 교인이 600명이었는데, 그 600명과 증인 한 사람과 바꾸고 싶더라. 제자가 안 보인다 하니, "여기 제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다. 그 때 내 마음이 그랬다. 그 정도로 사람이 변한 것이다. 교회 가는 것도 똑같이 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는가. 그 사람은 확실히 증인이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일어난다.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목사님 한 분의 딸이 허버드를 나왔다고 그동안 기도해주시고 고맙다고 하며 허버드가 새겨진 볼펜을 가지고 왔더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본 것이다. 여러분, 증인 역할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성경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복음 소식이 잘 정리 되어있지 않은가. 여명 군이 다 있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암송하라고 해라. 영원히 안 잊어버리게 된다. 다시 상품을 걸고서라도 아이들이 암송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변화시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이 되는 삶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된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고 성령충만을 체험하게 되면 되어진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 포럼을 들을 때마다 최복순전도사가 생각이 난다. 울림픽공원 캠프를 갔는데 얼마나 면적이 넓은가.(웃음) 의자에 앉아있길래 '왜 앉아 있는가. 가서 전도해야 하지 않은가.' 물었더니 "오늘은 더워서, 하나님이 여기에 데려다 놓으시면 전도하러구요." 한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옛날에는 시차적응 안 되서 잠이 너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식탁에 엎드려서 자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면 전도하겠습니다.' 했다. 그러다가 눈을 뜨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 왜 안 데려다 놓으셨어요.' 한 세 번 줄다가 일어나니까 누가 있는 것이다. 어떤 교회 사모님이 서울대학 교수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저기에 데려다 놓으셨네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여기에 있는 동안 복음 운동을 계속할 제자를 세우고 가겠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체험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확신이 온다. 정말 치유가 되든지, 서밋이 나오든지 해야 한다. 이번 축구 경기에서 메시 선수가 받았던 골든볼을 받지 않았는가. 2등을 했지만 제일 잘했다고 하면서 상을 받았다. 그 아이의 말이 참 멋지다. '이 상은 우리 팀이 받아야 할 상입니다.' 막내 형이라고, 막내면서 형이라고 잘된 아이이다.

증인일 때는 건방벌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다. 온유는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라는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는다는 심정으로,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참사랑가족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한다. 그런데 그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굉장히 피땀을 해야 하고, 열심히 하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40일을 금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놀아도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면 된다. '주여 지금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아직 체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이다. 복음을 정말 가지시길 바라며, 그 복음을 귀신처럼 떨지 말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요셉처럼 말이다.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 고독, 조울증, 우울증이 도망가 버린다. 여러분의 질병이 도망간다. 약령이 도망간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다. 할 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러려면 사람이 능숙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번 훈련을 받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진도 제자가 나오기를 바란다. 30명 영접시키고, 3명 이상을 교회화시키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이번엔 나오기를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지만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이 모든 것임을 누리보지 못한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게 하시며 성령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증거 때문에 증인될 수밖에 없는 누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